

상록원 개관, 학내복지 '달라진다'

3월말 정식개관 예정 ... '혼잡함' 등 개선 요구돼

부족한 학내 복지공간의 확대와 학내 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록원(가칭 톱비니관)이 새 학기를 앞두고 개관,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11일 학내복지의 양과 질의 병행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임시 개관한 상록원은 현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상록원의 공간배치를 살펴보면 1층에는 학생식당과 매점, 2층에는 학생식당과 커피숍, 3층에는 교직원식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는 1.2층의 학생식당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의 매장 입주는 정식 개관 이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상록원을 처음 이용한다는 이

진우(인문2)군은 "전체적으로 건물이 깨끗하며 식사문제에 있어서도 전에 이용하던 식당에 비해 상당히 위생적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여러 가지 매장이 많이 생기면 명실상부한 복지관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식당의 혼잡함이 가중되고 있어 학생들의 부상위험도 있다. 또한 매표방식과 배식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상록원이 임시개관을 하면서 학내에 있던 복지 매장들은 현재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쇄됐다. 다량관의 보리수는 매점기능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명진가든은 폐쇄됐고, 작년부터 논의되어온 동

국관 식당의 전면 개보수 공사는 4월말경 완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록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생활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량관 학생식당과 문화관 그릴 등을 이용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정식 개관예정인 3월말까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학기부터 도입예정인 IC카드가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 되면 혼잡을 피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C카드의 빠른 활용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현재의 배식대 구조를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원형 배식



지난 달 22일 임시 개관한 상록원이 많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대 구조에서는 보다 원활한 배식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인력을 충원해서 배식인원을 늘리거나, 육각이나 팔각모양의 배식구조를 만들어서 현재의 문

제를 풀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는 3월말쯤 정식개관할 예정인 상록원이 더 현실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한 종합복지관이 되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cwooso@cakra.dongguk.ac.kr

지면안내

☞ 대학생들의 주거문화	7면
☞ 동아내 '법법상행위' 대책을 알아본다	2면
☞ 경주캠, 외국어특강 시기서전 전망	3면
☞ 남북관계 상호주의 타당한가?	5면
☞ '한자병용 찬성' 그 이유는?	6면

보리수

'대자대비'와 앙갚음

윤 청 광(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대자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구경'을 통해서도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끝내 원망은 쉬 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엄히 당부하셨다.

"비구들이여, 만일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톱날로써 어떤 도목이나 악한들이 나의 사지를 끊는다 할지라도 그대의 그 마음이 어지럽고 성난다면 이것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비록 이와 같이 나에게 어떤 비난과 모욕된 말을 더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며 이와 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넓고 끝없는 사랑과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수련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가 말한 이 톱의 비유를 늘 생각하여라. 그것은 길이 너희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리라."

부처님께서는 단 '사십팔경계' 10항에서는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지 말아라"고 강조하셨고, 21항에서는 "마주 때리거나 원수를 삼으려 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런데 2천5백여년이 지난 오늘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종권을 잡으려 했던 수행자들과 종권을 잡은 수행자들 사이에 '원수를 갚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세속의 사형과도 같은 이른바 체탈도침이니, 멸빈이니 하는 섬뜩한 원수갚기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물론 종단의 중흥증법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일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징계는 징계로 그쳐야지 '사형'을 날발해서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어 내는 악순환이 아닐 수 없다. 더더구나 자비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불교종단에서 '공권징치'면 즉할 것이지, 같은 수행자들이 원수를 처단하듯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

조계사 기자회견

조건없는 정치수배해제 시행 필요

재야인사들, '불구속수사 및 기소유예' 촉구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해 여름부터 약 7개월간 수배해제를 위한 농성이 조계사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이창복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등 재야단체인사 7명은 지난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산한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달 22일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배자들이 자수하여 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면 불

구속 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수배자들의 수배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 이를 촉구하기 위해 갖게 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김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에 있는 양심수 특별 사면 이후에도 김대통령의 정치수배해제 지시와는 다르게 법무부와 검찰은 '자수해도 선별 구속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배자 전원에게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를 요

구했고 "이러한 방침이 세워진다면 70여명의 수배자는 부모들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오종렬 의장은 "대량 학살자이며 부정축재자인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아무 조건 없이 석방돼 잘 살고 있고, 비리를 저지른 금융인·정치인·기업인들 역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며 "이는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있었던 법무부 항의방문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정치수배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무부 장관과 공안당국자들의 해임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항의 방문과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계사 농성단은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조계사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며, 오는 20일에는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진야 기자 ring@cakra.dongguk.ac.kr

홍치유 교수 부총장 임명

보직교수 인사단행



홍치유 부총장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 정병조(윤리문화학) 교수에 이어 부총장에 임명된 홍치유 교수는 "지난 시기의 오류를 극복하고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총장=홍치유(물리학) △

대학원장=민태진(화학) △행정대학원장=이상현(경찰행정학) △경영대학원장=조희영(경영학) △교육대학원장=곽준규(교육학) △인문정보대학원장=김범웅(행정학) △산업기술환경대학원장=이문보(건축공학) △불교대학장=최정술(선학) △문과대학장=임기중(국어국문학) △이과대학장=이순(통계학) △사과대학장=백경남(정치외교학) △경상대학장=김태홍(국제통상학) △생자대학장=김용욱(식물자원학) △공과대학장=김병식(화학공학) △정산대학장=조암(산업공학) △예술대학장=송영방(미술학) △이부대학장=강성운(북한학) △

본사 양영진 주간 부임



양영진 주간

올대를 거쳐 시카고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본교에 부임하였으며 연구교류처 학술교류부장을 역임했다.



올해 12월 설계완료예정인 경주캠 대학본부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이 완공되면 경주캠의 자치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3면

수습기자 모집광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 모집인원 : 서울 및 경주 캠퍼스 0명
- 응시자격 : 99학번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 취재·사진·민화 기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3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 3월 25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됨

캠퍼스내 불법상행위 여전히 '성행'

신입생 노리는 각종교재 번치판매 ... 학생처·학복위 엄중 대처 방침

"신입생이세요? 뭐 좀 조사하러 나왔는데 설문지 하나만 작성해주시겠습니까?"

매년 신입생들로 캠퍼스가 북미는 2·3월이면 학내 곳곳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는 잡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인들의 대부분이 각종 교재 번치 판매업자들이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상행위에 응하지 마시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 부착을 시작으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박찬정·수교4),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공동으로 상행위 방지 캠페인을 벌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인 이번 캠페인은 학복위를 중심으로 각 단위를 통해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과와 함께 교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행위 발각·퇴

치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는 학과·동문·교직원들을 사칭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빌미로 인적 사항을 적어간 후 교재를 집으로 배달하거나, 대학연합 동아리 가입을 권유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교재를 무료로 주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직접 나눠주고 난 뒤 추후에 집으로 청구서를 발송하는 방식을 주로 취한다.

이러한 번치판매 물품들은 대부분 어학교재나 컴퓨터 교재, 자격취득 수험서 등으로 대학생 미취업 사태에 따른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뤄지는 강매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강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 사항 및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설문지나 가입서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이 구입한 적이 없더라도 주소, 이름 등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동구매 등으로 계약

을 체결했거나 본인도 모르게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매회사에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하여 후일 법률상의 증거로 삼고자 할 때 이용하는 국내 우편의 한 종류)으로 해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 본인의 이름과 수신인인 사업자 이름을 밝힌 후 구입과정과 해약사유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판매회사로 보내면 된다. 또한 미상년자(만 20세 미만)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나 허락이 없는 경우 철 회기간이 경과되어도 부모의 권한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학내 불법 상행위를 완벽하게



지난 3일 진디밭에서 쉬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한 잡상인이 교재를 판매하기 위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근절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복지매장 이외는 학내에서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게 하였다"며 "학내 상행위 장면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학생과(2260-3047)나 학생복지 위원회(2260-3681)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학내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이러한 노력보다도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생들 스스로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총여·6개 단과대 선거 실시

투표는 31일부터 3일간

지난 해 후보 미등록으로 99학년도 선거가 성사되지 못한 총여 학생회와 6개 단과대의 정·부 학생회장 및 대의원장 선거가 시작된다. 오는 15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19일에는

후보자 공보가 있고 24·25 양일간 단과대 대의원장 투표가,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공과대, 정산대 등의 단과대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조기졸업신청 오는 10일부터

누계 평점평균 4.0이상인 학생

교무처(처장=서윤길·불교학)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조기졸업 신청을 받는다.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으로서 취득학점이 이번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 학기 누계 평점평균이 4.0

이상이 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각 대학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6학기 등록자는 96학년도 신입학자만 해당되며 편입학한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이 될 수 없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대거 합격

서울캠 46명·경주캠 3명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지역 등의 중등교사임용 시험결과 본교 사범대에서는 총46명의 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9일에 각 시도교육청의 공고를 통해서 각 시도별로 지난 1월과 2월에 1차 및 2차 시험을 통해서 최종선발된 합격자는 △국어교육과 15명 △역사

교육과 9명 △체육교육과 4명 △지리교육과 8명 △교육학과 4명 △수학교육과 6명이다. 경주캠 또한 수학교육과 3명이 각각 경기·울산·경남 지역에 합격하였다. 이들은 교육법령에 따라 1년간의 수습교사생활을 마친후 정규교사로 임용된다.

총대, 새터 부정기 감사 실시

15일부터 4일간

총대의원회(의장=최진범·영문4)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99새내기 새터배움터 부정기 감사'를 실시 한다.

각 단과대 및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사업, 조직, 예산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지난 5일 1차 감사자료제출을 마감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한 단과대는 사유서와 함께 오늘(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감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5일-불대, 예대, 경산대 △16일-법대, 사과대, 생자대 △17일-동아리연합회, 야총, 이과대 △18일-총학, 공과대, 정산대, 사범대.



본신 학생회관 1층 안내실에 걸려있는 습물물은 학생증과 현금카드 등 중요한 소지품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진아 기자

총학, 지난 3일 학자학교 진행

대학운영위·등록금 문제 등 논의

'99년 학원자주화 투쟁 승리를 위한 2차 교양학교(이하 학자학교)'가 지난 3일 2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학림관(J504)에서 진행됐다.

이날 학자학교에서는 △이정진(행정3) 사과대학생회장의 '총장낙점'과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에 관한 발언 △이영수(전산통계3) 야간

강좌 총학생회장의 '등록금 삭감'에 대한 발언 등이 있었다. 이어서 이선진(수교4) 학원자주화 투쟁위원회 위원장의 방중 등록금 삭감투쟁의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 보고, 상록원을 비롯한 학내 복지 매장에 관한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

큼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내일(9일) 오후 1시 불상앞에서의 '학자투 보고대회'와 3차 등록금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쓰레기 소각장 "완전히 없어진다"

이번달에 상록원이 공식적으로 개관할 예정인 가운데 그 옆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이 폐쇄된다.

현재 중구정 환경과의 폐쇄승인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3월 셋째주쯤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로써 학내 쓰레기는 해화관 옆의 컨테이너수집장에 모인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원총, 오는 10일 학생대표자회의

신입생 OT, 11일 덕암세미나실에서

대학원총학생회(회장=이석중·입학박사과정 2학기)는 오는 10일 방중사업 정리 및 일년사업계획논의를 주제로 학생대표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각과 자치위원장, 조교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대학원총학생회 집행부, 특별위원회, 생

협이사 인준 △1년사업(총노선) 및 예산안 인준 △동원학술상, 세미나 지원사업 △생활협동조합 대의원회 건설 △학생대표들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에서 개최하는 사진과 컴퓨터 생활문화강좌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어진다.

신규동아리 등록 접수

심의통과시 정식활동

동아리연합회(회장=박종근·영문(야)3)는 99년도 신규 동아리의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1차 등록은 오늘(8일)까지이며 최종 마감일은 이달 12일까지이다. 신규 동아리들은 오는 25일에 있을 전체동아리대표자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정식 동아리로 인정되어 활동하게 된다.

고수동정

▲임호일(독문학)=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내에 의한 교원회의 연수로 독일 함부르크 대학 방문. ▲곽문규(기계공학)=지난 3일부터 4일까지 Newport Beach at California in USA에서 제6회 Smart Structures and Materials 국제 학술 회의에 논문발표.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대학원 연구과정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개설강좌

모집과정	개설강좌		모집인원
	1학기	2학기	
시스템분석과정	계제지향 개발방법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4세대 언어 프로그래밍	CLIENT/SERVER 프로그래밍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정보시스템 계획 및 분석	40명
창업 및 벤처경영과정	사업성 분석/사업계획 벤처기업 창업 수집포 창업	벤처기업 성장전략 소기업 경영 신제품/신사업개발	40명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과정	기업정보보호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보안과 암호응용 사이버 बैं킹 네트워크 보안실무	60명
국제금융과정	국제재무관리 재무회계 국제투자론	과성금융상품 국제금융실무 국제외환딜링	40명

※ 본 대학원 학위과정 진학시 일부학점을 인정함.
 ※ 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 지원 현황에 따라 모집과정 및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1)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부예정자로서 미취업자.
 2) 1학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1) 서류심사 2) 구술시험(과제별 실시)
 ※ 구술시험은 과정별 지원자 전원에게 상대평가로 평가한다.
 4.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0매) 1부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원학원 성적증명서 1부
 4) 면접 및 구술고사 서식(소정양식) 각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후 99. 3. 26(월)까지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 지원서 교부일시 및 장소
 1) 일시 : 99년 3월 4일(목)~3월 10일(수) 09:00~17:00까지
 2) 장소 : 학술관3층 대학원교학부(서울캠퍼스)
 6. 지원서 접수일시 및 장소
 1) 일시 : 99년 3월 9일(화)~3월 10일(목) 09:00~17:00까지
 2) 장소 : 학술관3층 대학원교학부(서울캠퍼스)
 7. 전형일시 및 장소
 1) 전형일시 : 99년 3월 13일(토) 10:00부터
 2) 장소 : 시험당일 본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8. 합격자 발표 : 99년 3월 18일(목) 대학원 게시판에 공고
 9. 등록기간 및 장소
 1) 기간 : 99년 3월 22일(일) ~ 3월 24(수) 3일간
 2) 장소 : 본교 제일은행 또는 조흥은행 출장소
 10. 기타
 가. 지원료 : 20,000원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예정된 졸업이 불가능한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다. 문의처
 전화 : 2260-3093, 3094, 3095(서울캠퍼스)
 팩스 : 2260-3685(서울캠퍼스)
 인터넷 : http://www.dongguk.ac.kr
 E-Mail : anny@cakra.dongguk.ac.kr, bskkk@cakra.dongguk.ac.kr
 주소 : 100-715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장

사회봉사 단원모집

99학년도 봄학기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학생, 교수, 직원
- 신청서 접수기간 : 99. 3. 8(일) ~ 3. 17(수)
- 봉사활동 기간 : 99. 3. 22(월) ~ 5. 31(월)
- 접수처 : 학생처 동국참사람봉사단 (장학관 내 ☎2260-3050)
- 봉사 대상 단체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외 50여개 기관 및 단체(3백여개 프로그램)
※ 봉사대상기관과 날짜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봉사결과 : 기간내(3개월 동안)에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결과에 따라 학점(자유선택, 사회봉사 1학점 Pass)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재학기간 중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1학점씩 2학점까지 인정함.
※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대상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장

학번체계 변경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번체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신학번체계 : 8자리
가. 첫 자리 : 세기구분
나. 2~3자리 : 연도 2자리
다. 4자리 : 구분코드
라. 5~8자리 : 연번호 4자리
- 대상 :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제적생, 시간제학생
- 적용시기 : 99. 3. 1일부터
- 당부사항 : 학생증을 재발급 받을 것
(재발급신청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수수료 없음)

교무처장

올 12월 본관설계 착수한다

경주캠 자치권 ... 부총장 고유권한 대부분 위임 총장 면담, "자연관·영상관 증축, 등록금 분납 가능"

본관설계도 가안에 대한 1차 설명이 지난 1월말 김갑주(국사학)부총장을 비롯해 학교측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짐에 따라 경주캠퍼스 개교이래 수없이 논의돼 왔던 본관건립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0월 서울캠퍼스에서 본관설계에 대한 논의가 있은후 간담 종합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맡고 방중에 가안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 1층, 지상 4층 총 2천6백32평 규모로 들어설 본관은 정각원을 기준으로 서쪽방향 언덕 앞, 즉 현재의 소운동장에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본관설계도 가안의 총별 용도

를 보면 △1, 2층 = 행정부서 △3층 = 총장실, 비서실, 교무위원 회의실 △4층 = 지역개발대학원 행정기구 및 강의실 △지하 = 강당 겸용 대회의실 등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기초안 수정, 보완을 통해 빠르면 올해말쯤에는 본관설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날 22일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섭·불교4)는 학교측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생요구안'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으며 26일까지 듣기로한 답변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3일 입학식날 총장과 총학생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이 있은후 이상섭

총학생회장은 "경주캠퍼스의 자치권은 부총장 권한으로 대부분 위임했으며, 건물 증축과 관련하여서는 올해안으로 영상관 증축, 자연관 증축 등을 약속했다"고 간담하게 언급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은 지난 5일에 있었으며,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구조조정 계획 = 3월중에 이사회에서 조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 동안의 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 진행후, 7월중에 본격적으로 시행 △등록금 납부 연기와 분납제도의 확충 계획 = 금액의 반을 분할 납부 예정 △최초 신입생 선발자의 장학금 혜택 = 수석장학금은 우수합격자를 유지하기

위한 장학제도로 다음 순위로 넘어갈 성질이 아닌, 99학년도에 경우 입학포기자가 많아 상위 몇 등(또는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중 △대학운영위 구성 = 대학운영위는 의결권을 갖기보다 음부즈맨 형식으로 운영, 학생이나 대학운영에 관한 것은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질 것 등이다.

학교측의 답변과 관련해 이상섭 중앙운영위원장은 "답변이 질의와 다른 것이 많았으며, 내용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히 이번주중에 열릴 중운위를 통해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희정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이전부터

약속

○... "자판기 비교체험 극과 극!" 한국의 음료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코카콜라가 동아내에도 등장했는데.

대학가에서 조차 국산을 외면하는 현실에 우리의 목소리가 높다고.

그러나 국산 상품 음료를 찾다가도 허전한 국산 음료 자판기 옆의 새 코카콜라 자판기가 학생들의 구미를 당기니.

이에 애국심으로 국산 음료 자판기를 찾던 한 학생 왈, "매일 너한테만 동전을 넣겠다고 약속할게. 아주 평생!"

개방 후

○...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개방하는 주에는 말 없이 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 첫 번째 수업시간은 휴강이다.
- 수강신청정정이 끝나기 전에 수업이 폐막되어도 된다.
- 별건 내내에도 학내 주류반인이 왕성하다.

이에 한 교수님 말씀하시길, "음~ 이따가다만 자체로 학업에도 말이 필요없어 질게야."

숨겨진 비밀

○... 자판기 전성시대(?) 학생회관 1, 2층에 설치된 2대의 음료수 자판기가 제맛대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

알아보니, 같은 종류의 음료수가 서로 달라 구입시 다른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되는가 하면 콜라를 고르면 커피가 나오는 등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에 자판기 앞에 선 한 학생 왈 "혹시 말로만 듣던 매저 박스?"

흔적

○... 그들만의 잔치(?) 지난 3일 입학식 이후 술잔이 오가는 정겨운 선취배간의 상견례 자리가 각 과마다 마련됐으나 튀처리 제대로 되지 않아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쓰레기통을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2차 떠나기에 바빴던 학생들,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쓰레기를 사뿐히 저러 밟고 가시옵소서(?)"

여성관련도서 대여

'21C와 여성'·'한국의 어머니' 등 30여권

여학생부처(부처장=박명숙·가정교육학)는 지난 4일부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여성관련도서 30여권을 여학생부처 사무실에 구비했다.

여성관련도서 이용안내를 살펴보면 대여방법 = 신분증 및 학생증 반납 △대여기간 = 10일 △대상 = 학생 및 교직원 △대여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구비된 도서는 '21C와 여성', '여성과 리더십', '한국의 어머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등이다. 도서대출과 관련해 여학생부처의 한 관계자는 "30여권의 도서목록을 여학생부처 게시판에 공고하니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각원(원장=최희상·불교학)은 오는 10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교직원 개강법회를 갖는다.

이번 법회는 '유럽의 종교계 현황'이라는 주제로 윤호진(불교학)스님이 강연하며, 법회의 식순을 살펴보면 △개회사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법사 약력 소개 △정각원 △설법 △사홍서원 등이다. 행사가 끝난후 정각원 선실에서 다과회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개강 법회와 관련해 정각원측은 "사정에 따라 식순에 유동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각원, 개강법회

'유럽의 종교계 현황'

오늘 학생 DC카드 배부

학복위, 어학특강 실시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종훈·사북4 이하 학복위)는 99학년도 학생 DC카드를 오는 8일 배부할 예정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가맹점을 확충했으며 각 단체 학생회 협조를 얻어 학생들에게 DC카드를 배부한다.

DC카드와 관련해 학복위 위원장은 "올해는 각 업체의 많은 협조로 가맹점 보충에 큰 어려움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학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어학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과 수강료를 살펴보면 △엘리트 토익(3만원) △시사 토크(3만원) △일본어 뱁(3만5천원) 등이며, 접수는 구내 서점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경리과(과장=신봉근)는 지난 6일까지 등록금 납부기일을 연장해 등록금을 받았으며, 4일까지 등록률은 67%라고 밝혔다.

등록과 관련해 신봉근 과장은 "2차 등록 기간까지 등록이 증진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3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 전과 합격자 발표 복수전공 전원 가능

학적과(과장=조원생)는 지난 5일까지 일반 휴학등록을 집계한 결과 일반 휴학은 8백29명, 복학등록은 8백6명이며, 군사 휴학은 계속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 전공 지원자 2백16명은 지원학과를 배정받아 100% 복수전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학과 및 학부 전과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오는 8일, 9일 이틀간 면접을 실시한 후 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일까지 등록기간 연기 재학생 등록률 67%

등록과(과장=신봉근)는 지난 6일까지 등록금 납부기일을 연장해 등록금을 받았으며, 4일까지 등록률은 67%라고 밝혔다.

등록과 관련해 신봉근 과장은 "2차 등록 기간까지 등록이 증진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3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대교 입구, 교통표지판에 동국을 가리키는 영어 표기 Dongguk이 Dongguro 잘못돼 있다. 장희정 기자

외국어 특강 안내

본 외국어 교육원에서 학생 여러분의 5526 영어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프로그램

교육 과 목	요 일	강 의 료
영어회화(S&L+R+W skill)	월~금	3만원
말하기(Speaking Skill)	월·화(Lab실사용·15명 내외)	2만원
독해(Reading Skill)	수·목	2만원
영작문(Writing Skill)	금	1만원
TOEIC		
TOEFS	월~금	3만원
TEPS		

2. 강의시간 : 1999. 3. 15 ~ 4. 9(4주)

4. 12 ~ 5. 7(4주)

5. 10 ~ 6. 4(4주)

3. 강의시간 : 오전 8:00 ~ 8:50(50분 수업)

오후 5:10 ~ 6:00(50분 수업)

4. 강사 : 본교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수 및 내국인 권위자

5. 강의대상 : 학생(일반인 가능)

6. 접수기간 : 1999. 3. 2(화) ~ 3. 12(금) 오전 9:00 ~ 오후 5:00

7. 접수·원료관 3층 시청각 도서실(문의처 : 770-2468)

경주캠 외국어교육원장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 : 가. 99년도 4년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나. 1975. 3. 1 ~ 81. 2. 28 사이에 출생한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99. 3. 8 ~ 4. 24(학군단 행정실) 나. 구비서류

지원서류	처별검정(면접평가, 신체검사) 지출물
· 지원서(학군과 소정양식)	1부
· 수능성적/대학성적 증명서	각 1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부서명 기재등본 제외) 각 2부	· 개인동장, 수험표, 신분증
· 국가유공자, 군 장기근속자 자체 확인서(해당자)	· 검정색 불려 지참
· 특기자/국위선양자 증명서 사본(해당자)	
· 전연색 사진(4x5cm 탈모 상반신)	4매
· 병적증명서	1부
- 선발절차 및 배점 가. 서류전형(수능성적 30%, 대학성적 20%), 체력검정 30%, 면접평가 20% 나.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합격, 불합격)
- 특전 가. 장교신분으로 최단기 국방의무 수행 나. 국비에 의거 국내외 석·박사 학위취득 가능(장기지원자) 다. 병과분류시 전공과목에 따라 16개 병과 분류 라.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마. 대기업 학군출신 장교 우대선발 및 처우 * 문의처 : 동국대 (서울)학군단 (TEL. 2260-8537, 8538) 동국대 (경주)학군단 (TEL. 770-2537, 2536)

99 군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1학년 00명, 2학년 00명
- 지원자격 :

4년제(1학년)	3년제(2학년)
· 77. 10. 1 ~ 83. 10. 1 출생자	· 대학 1학년 성적이 매학기 C학점 이상 자
	· 76. 10. 1 ~ 82. 10. 1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99. 3. 2 ~ 3. 31(학군단 행정실) 나. 구비서류

지 원 서	신 체 검 사 시
· 지원서(사건첨부) 및 서약서	1부
· 대인 수능고사 성적 증명서	2부
· 대학 성적 증명서	1부
· 복부연장 지원서	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 2부
· 학생 종합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면접평가 관련서류	각 1부
· 병적증명서	각 1부
- 선발절차 및 배점 가. 1차 : 서류전형(수능 40%(1학년 50%) 대학성적), 면접평가 20%, 체력검정 30% 나. 2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인성검사(합격, 불합격)
- 합격자 발표 : 99. 8. 12
- 특전 가.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나.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동 다.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라. 대학 2학년초 학군사관 지원서 우대(가산점 부여)

제112학군단장

동약로



작은 기대

“학생회관 식당이 새롭게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지난 2일 개강 첫 주 개관식을 가진 학생회관 식당 입구에는 수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저게 무슨말이지?”라며 한 학생이 플래카드를 가리키며 다른 친구들에게 말한다.

“글쎄, 방학동안 변화가 있었다는 말같은데, 올해는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되는건지 한번 가보자.”라며 학생들은 식당안으로 발을 옮긴다.

식사하러 들어오던 학생들은 발을 멈추고, 식당안을 한번 둘러본다.

“와! 깨끗하고 아늑하게 바뀌었네.”라고 한 학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처음엔 모든게 다 깨끗하기 마련이야. 어서 줄이나 서자.”라며 다른 한 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식권 판매대로 가서 차례를 기다린다.

식사를 배급받은 다른 한 쪽의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우왕 좌왕 헤매인다. 그러자, 관리자인 듯한 사람이 다가가 낯선 식당이용법에 대해 안내를 해준다. 학생들은 어색하다는 듯 그냥 지나치고 식탁에 앉는다.

따로 준비된 반찬을 담은 학생들. 반찬을 보자마자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나온다. “이게 뭐야, 작년과 다르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나는 은근히 기대했는데, 변한게 없어.”라며 학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한다. 식탁위의 반찬은 단출하다 못해 영성해 보이게까지 한다. 심지어 밥과 국만 떠 먹는 학생들도 눈에 띈다. “먹을게 없어”라며 접시에 반찬이 가득 담긴 식판을 들고 식기 반납 장소로 향하던 한 학생이 투덜대며 식당을 나간다. 식당안으로 들어가 기전 플래카드를 보며 많은 기대를 가졌던 학생들.

식당밖을 나오며 “작년과 다르게 없다”라고 내뱉었던 그들의 말 속에서 식사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가져 본다.

<영> dg19810273@mail.dongguk.ac.kr

새천년을 향한 여성해방 움직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유 결실

3·8 세계여성의날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권에서의 여권 신장과 평등권 보장을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3·8 세계여성의 날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20년대부터 여성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결의의 날로써 3·8 기념 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매년 3월 8일이 되면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여성 등 각계각층이 모여 여성해방의 실천과제를 고민하고 결의하는 자리로서 여성의 날 대회를 계승하고 있다. 올해 행사로는 6일부터 14일 까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전국여성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 7일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제15회 한국여성대회가 있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여성해방

서구에서는 여성해방론에 대한 이론 체계를 18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축해오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해방론은 여성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이론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구이론을 우리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포함한 한국 사회제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여성해방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과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시기에 여성들은 생활화적인 이유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인식의 부족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내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때때로 IMF 체제를 맞으며 정리하고 한파가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침에 따라 여성 노동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관심 또한 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노동권의 법제와 현황

여성은 취직기회, 임금, 채용조건, 신분보장상에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제화가 요구되었다. 헌법 제11조에서는 “여성은 경제적

우가 많다. 미국 연방법원은 성희롱이나 아니나의 기준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여성이 환영하지 않고 대응하기 싫어하는 남성의 성적인 언행이나 접촉이 직장과 같은 고용·피고용 등의 계급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히 일었다. 성희롱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성희롱의 경우 일반 형사법은 물론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도 이를 처벌할 법규가 없었다. 그러나 유일한 성희롱 처벌책인 성희롱 방지법마저도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어 여성 노동환경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고 있다.

노동에서의 여성해방과 전망

여성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화의 한계성은 매년 3·8 기념 대회를 통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해결방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고용평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95년 고용보완법 시행지침에서 근로여성에게 2개월간의 유급휴직 이후 10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것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위 반할 때에는 강제조치와 벌칙규정이 강화되어야 실질적인 시행이 이뤄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여 종합적, 체계적, 실질적인 여성근로 및 복지관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남녀성사, 부하직원 간의 성희롱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감춰지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나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과정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인종과 국가를 떠나 세계 각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실천을 결의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그러므로 3·8기념대회는 몇몇 여성단체의 여성해방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천과제를 이끌어내는 자리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속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기획 - 내각제 시리즈 1

“현안 내각제는 독일형 순수 내각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DJP 연합 조건으로 약속되었던 핵심시안은 99년말까지 내각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에 대한 시리즈를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내각제의 특성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각제
2. 현 시점에서 내각제는 적합한가
3. 당면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급변의 핵심적인 정치현안은 내각제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공동정권 탄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국민의 여론은 마치 사과의 반쪽처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대변이나 하듯 공동 정권의 양태적인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에 갈등을 표출하고 있어 민망스럽기도 하다.

내각제문제는 정당·정치인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와 나라의 장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후시나 절실한 정치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까 걱정스럽다.

원래 내각제란 행정부는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이 운영하고 그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이다. 그래서 의회제정부라고도 한다.

오늘날 의회제정부의 원형은 두말할 필요없이 영국의 내각제이다. 이를 모델로 삼아 서구 국가의 대부분과 그 밖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2공화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내각제의 특징은 첫째, 정부는 의회에 의해 구성되며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둘째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고 내각 또한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셋째, 원칙적으로 내각의 각료는 의원이 겸직하며 넷째, 수상은 의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의 당수가 되나 연립내각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섯째, 국가원수직과 행정 수반직이 구분되어 있는데 국가원수직은 의례적, 상징적인 국왕이나 대통령이 맡고 행정수반직은 수상이 맡는 쌍두적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간의 권력적 융합과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가의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나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영국도 20세기에 이르러 몇차례의 선거법 개정과 행정국가적 요청에 따라 내각이 의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의 의견을 내각에 전달하는 매개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영국의 내각제를 내각책임제 심지어 수장정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독일의 내각제를 수상중심제라고 한다. 연방수상은 대통령의 추천에 의하여 연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정당 당수를 선출하고 있지만 그 권한은 막강하다. 내각제의 핵심요소인 연방수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받고 있다. 기본법 67조는 연방의회가 그 후임자를 선출하고 또 대통령에게 수상대임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상의 의회해산권도 수상의 신임결의가 부결되었을 때 대통령을 수상의 요청에 의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과반수로 후계수상을 선출하였을 때는 그 해산요구는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선후 최초로 성립된 연방수상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 행사는 관례상 1년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두고 우리는 건설적 불신임제라고 부른다. 이로써 독일 내각제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역대 정권이 평균5년이상을 유지해 왔다.

다른 한편 이탈리아는 의회우위적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어 빈번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의회의 내각 불신임행사로 말미암아 내각수명이 평균 1년반 정도로 비교적 불안정한 정부를 갖고 있다. 다당제에 의한 연립내각 구성이라는 장점도 있으나 정치적 이해로 인한 불신임권 행사로 불안정한 정국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단점도 갖고 있다.

무엇든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내각제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의회의 신임을 정부 존립의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 내각제는 발빠른 변화와 능률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내각이 의회에 정력을 소모하고 사사건건 의회에 발목을 잡힐 경우 국정운영에는 차질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정당제도가 발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불안정이 쉽게 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집권정당의 의식이 압도적일 때는 상가풀과 같이 일당독재체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현안의 내각제는 어떤 모델을 상정하고 있는가. 순수내각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모델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순수라는 용어가 잘못하면 전통적인 의원내각제로 오해할 소지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유 광 진
사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대중 정부의 '상호주의' 논란

남북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논리

3.1절 특사로 장기수 어른 17명이 석방되는 것을 계기로 대북한 상호주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석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해주는 것은 전향적인 제안에 대하여 국군포로나 남북어부의 교환조건으로 복송해야 한다는 상호주의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상호주의라는 선장적인 상징어가 안겨주는 마력에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매료되고 있지만, 좀더 장기적인 민족사의 구도 하에서, 또 민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본다면 상호주의의 매력은 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상호주의의 문제점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본다.

첫째, 상호주의는 양자간의 관계가 남과 남의 관계이고 또 대등한 관계일 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곧, 시장에서 남과 남 사이에 단지 화폐를 매개로 감이 어떤 값 어치를 물에게 지불하고, 물은 그것에 상응하는 상품을 값에게 양도하는 교환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를 우리는 상호주의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이나 부부 지간에는 이러한 상품 교환관계인 상호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조적인 관계이다. 그런데 남과 북의 관계

는 별개의 주권을 가진 나라와 나라사이 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민족 내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적용하는 전제조건 자체, 곧 남과 남 사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상호주의라는 장군·명군 식의 주고받기나 치졸한 잔 싸움으로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분단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 적대관계로 얼룩진 남북사 이를 해결하려면 무언가 획기적인 계기를 통하여 불교를 터는 작업이 긴요하다. 이것은 결코 주고받기 식이 아니라 서독의 브란트가 동독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양보 하여 돌과구를 마련한 것과 같은 통이 큰 사업작품을 펼쳐야만 한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1백억 달러를 동독에게 제공하면서 인적교류의 불교를 뒀다.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또는 배려주의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냉전이 해제되는 시점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통일을 일구었던 것이다. 서독이 상호주의정책을 폈더라면 탈냉전이 되었다고 해서 통일을 달가와 하지 않는 주변국가의 반대를 극복하고 독일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었을까?

셋째, 남과 북은 지금 전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97년 남한의 GNP는 약 4200억 달러이고 북한은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177억 달러이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 외에도 북한은 외교·군사적 고립과 식량난으로 인하여 생존권의 위협 하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굶어죽고 있는 사람에게 쌀 한 말 줄 테니까 못 한 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호주의 행위는 철저한 일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라고도 통일을 이야기하고 동포사랑 운운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따름이다.

넷째, 통일정세는 남과 북이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고 있을 정도로 느긋하지 않다. 우리 민족사에서 통일의 기회는 앞으로 20년이 고비이다. 중국의 GNP가 미국을 능가하게 될 2020-30년경에는 두 나라사이에 동북아수준의 신냉전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50년간의 동서냉전체제하에서는 남과 북이 아무리 공조를 하여 통일을 하려해도 소련과 미국의 강제력 때문에 통일은 불가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사이의 신냉전하에서는 북한은 중국에 남한은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어 통일은 또 다시 5-60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절대적 과제는 이 신냉전이 도래하기 이전에 남과 북이 하루빨리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 부분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기정사실화 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장기



강정구 사파대 사회학과 교수

적 민족사의 구도 하에서 장기수 문제나 상호주의 문제를 접근하면 결론은 뻔하다. 국민의 정부도 작년 베이징 비료회담에서 상호주의원칙을 발표하였다가 이것이 자승자박임을 깨닫고는 비등가적 또는 비등시적 상호주의라는 형용모순적인 억지 개념으로 상호주의 이름만은 유지하고 있는 교육지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잘 못 긴 첫 단추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정도로 그 권력기반은 튼튼하지 못하다. 조그만 틈새라도 있으면 철저한 반공주의와 증독된 지역주의를 꼬집어 내도록 선포하는 쓰레기 정치인들과 이에 부응하는 지역주의자들 때문에 계속 머뭇거리는 것이 김대중정권 대북정책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감히 이에서 벗어날 시점이다. 이제는 여론추수적인 정책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와 수용을 이끌어 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사설 정부의 한심한 실업대책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새로 졸업한 대학졸업생들마저 실업자 대열에 합류, 2월말 실업률은 9.5%에 달하게 됐다. 이는 한달만에 18만 8천명의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1/4분기 예상 실업률 8.3%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더구나 이수치는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를 제외한 것이기에 실제 실업률은 10%를 상회한다. 현 정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실업률이 이 정도로 치솟은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정부는 최고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는 작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5.5%에서 올해 2%대로 회복, 작년에 없어진 82만개의 일자리 중 30만개가 복원될 것을 가정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문스럽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안이한 기대에 빠져, 이러한 실업대책마저도 상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산발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진통제만 나눠주는 격이다. 선행해야 할 것은 기업, 금융부분의 소유·지배 구조의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확립이다. 더불어 대학등 사회 교육기관의 적극 활용으로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현재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 분단만을 강요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학생회관식당에 바란다

설립이후 지금까지 외부업체와 수익계약으로 운영돼온 경주캠 학생회관식당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새로운 업주가 운영하게 되었다는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음식의 질적 향상과 식당의 환경개선에 대해 학생회와 업주, 학교측이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를 이어받아 이뤄낸 오늘의 성과자제만으로도 만족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새롭게 선정된 LG유통이 식당운영을 해온 지난 한주일을 돌아보면 과연 10년만에 얻어낸 변화의 성과가 겨우 이정도인가 하는 회의마저 느껴진다. 입찰과정에서 LG는 조리실명세 및 자료공개, 메뉴의 다양화, 이익금이 2%를 넘을시 이윤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것 등 많은 것들을 합의했지만 정작 업주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식단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것 같다.

우리는 해마다 식당 업주와 실랑이를 해왔다. 무엇보다 음식의 질에 비해 높은 가격이 원인일것지만 더 큰 문제는 학생들과 업주, 학교사이에 믿음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LG 역시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공식적으로 식당운영을 하게 됐지만 학생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줄지 의심스럽다. 아니, 지난 일주일간의 운영을 봤을 때 기존 식당업주와 다를 바 없을 것이란 예감까지 들게한다.

공개입찰로 외부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하나의 변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다. 학생들의 의견수렴없이 학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식당으로 거듭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즉, 경주캠에서도 생협의 출범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생협의 건립을 주장하기엔 경주캠의 환경이 열악한 것을 부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LG에게 바라고 싶다. 올해는 식당문제를 더이상 제기하지 않게하는 한해를 만들어 달라고.

노사정위 또, 위기에 처하다

민노총 탈퇴... 문제는 '불신'

합의사항 강제해널 법 개정 절실

민노총(위원장=이갑용)이 지난달 24일 대의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선언하고, 이어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어 노사정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수차례오나 한창 경기 회복세로 접어든 시점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으로서 우리에게 적잖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대외신인도 하락, 사회불안 등 부정적 요소들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1기 노사정위원회는 98년 2월 9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을 이뤄냈으며, 이는 당시의 험난한 상황에서 방과제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되었던 2기 노사정위원회도 많은 논란과 갈등을 겪었으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노사대립의 완충역할을 해냈다.

노사정위원회 출범 전에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창구가 특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직접적인 충돌이 많았고, 이로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이 막대했

음에 비추면때 노사정위의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를 이뤄내는 틈틈이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민노총을 비롯한 '노' 측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왔다.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 등이 법제화됐으나 민노총은 아직 합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진작에 합의된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문제나 교원노조 합법화 문제 등이 시행되지 않다가 민노총측이 탈퇴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서둘러 이에 대한 입법화가 추진된다는 땀겨울한 느낌도 지을 수 없다. 결국, 민노총측은 지난달 24일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 선언했으며, 4일후인 27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갖고 "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3. 4월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결국, 이번 노사정위의 위기를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간의 불신이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의 김원기 위원장은 "대통령에 근거하고 있는 노사정위가 법적인 집행력과 권한이 없어 정부의 성실



한 참여와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정위가 결정적인 힘이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정부부처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들어 다행스럽게도 여당을 중심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할 의무가 있다'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위상이 조금은 상승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노사정위의 협

의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정도의 개정만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이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정상화되기도 어려울 것이고 만약, 정상화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노사정위의 필요성이 절실한 현실에서 노사정 서로간의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제해 낼 수 있는 법조항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부주간 심규박	편집국장 박상관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편집장 김미경		하이텔·나무누리 ID dg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7
		팩스 (0561)770-2058

한글전용, 아직 때 이르다

문화관광부의 한자병용 정책 추진 발표 후 우리 문자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기다리더라도 좋다는 뜻, 즉각 언중(言衆)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언론 매체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쪽 주장을 소개하기에 바쁘다. 가끔은 찬성쪽과 반대쪽 사람들이 방송 매체에 등장하여 자기네 견해만이 최선의 정책이라도 되는 양 사자후(獅子吼)를 토해내기도 한다. 본격적인 문자정책의 논의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감한 사안인으로서 그런지 각기 점의(?)를 다지고 있다. 권위주의의 정권 시절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아 온 불신이 저 밑바닥의 쓰린 기억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일 것이다.

동대신문에서는 지난 호에 한자병용 추진 반대쪽의 주장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찬성쪽 주장을 싣겠다고 한다. 찬성쪽 주장을 펴기에 앞서 가서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난 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문자정책과 관련된 수밖에 없는 사항을,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절차나 언중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을 생략한 채

실이었다. 우리 문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많은 고유어들이 한자어로 바뀌거나 처음부터 한자어로 생성되었다. 그래서 우리말 명사류에는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월등히 많다. 구어와 문어가 다른 비정상적인 언어생활이 가져다 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15세기 중엽 우리 문자인 한글이 창제되고 5세기 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고유의 문자가 있다는 감각을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우리 문자를 널리 보급하고 지켜내는 일이 버거워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글은 어렵게 오늘에 이어졌다. 오늘에 이르러 한자를 모르는 언중들이 늘어나면서 '한글전용'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우리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아직도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일은 큰 진전이 없어서 한글만으로 표기된 단어의 의미 파악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자어를 적절한 고유어로 바꾸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한글 전용'은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바요, 우리 어문 정책의 화두임에 틀림없다. 다만 아직은 때가 이르다. 애국심·국가관 모두 소중하지만 아직 대체할 적당한 어휘가 없고, 의미 전달에 배제할 수 없는 한자라면 병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문자생활인 것이다. 한자어를 적절한 고유어로 바꾸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의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적어도 한 나라의 어문 정책 관련 사항이라면 시대에 맞지 않는 법적 근거만을 들춰낼 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어문 정책은 기호 식품 고르듯 '좋다' 또는 '싫다'고 간단히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조사의 속성상 '찬성'이나 '반대'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어문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자세가 아니다. 어문 정책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생각과 성찰의 결과로 이뤄져야지 순간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될 철학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글 전용'은 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바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우리 어문 정책의 화두임에 틀림없다. 다만 아직은 때가 이르다. 우리 민족이 이땅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적 삶을 일구어 온 것은 꽤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15세기 중엽까지 고유의 문자를 가지지 못했다. 고유 문자가 없는 동안 인접 국가인 중국의 문자를 빌어다 우리 문자 대신 사용했다. 중국어의 전체계를 그대로 가져와 도거리로 우리말 표기에 이용하기도 하고 한자를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우리말이 한자어에 잠식돼 갔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당연한 사

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지금은 한자를 우리나라에 전해 준 중국에서조차 간체자로 바뀌어 사용하지 않는 한자이지만 우리말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 애국심·국가관 모두 소중하지만 아직 대체할 적당한 어휘가 없고, 의미 전달에 배제할 수 없는 한자라면 병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문자생활인 것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적절한 고유어가 있다면 굳이 한자어를 고집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한자어를 적절한 고유어로 바꾸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문자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우리 문자 창제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한자로 된 어휘가 우리말에 상당수 존재하는 한 원활한 의사 소통과 지식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자를 병기해 쓰는 일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정보화 시대에 사무 능력의 향상과 정보기기의 개발에 장애가 됨을 말하기도 하는데, 정보화 사회일수록 정확한 의미 파악과 의사 전달은 더욱더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사족을 붙인다면 대학은 다양한 학문의 세계를 접하는 곳이다. 우리 문화와 전통을 알기 위해 한자어로 된 문헌까지 섭렵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대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김 무 봉
문과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짜깁기”와 “인용” 달하나 천강에

'동대신문' 97년 11월 3일자는 '무의식 속에 깃발하는 지적 소유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그 첫 부분을 읽어보기로 하자.

'한 학생이 레포트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고른다. 필요한 부분을 두 장 복사한 후 흔히 말하는 짜깁기를 한다. 참고문헌 표기를 하고 과제물을 끝낸다.' 아무렇지 않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이 학생은 법을 어긴 범법자이다. 개인의 지적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학은 저작권법이 그 어느 곳보다 잘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들은 이를 무의식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 우선 학생들이 작성하는 논문이나 레포트의 경우 다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논문과 과제물의 끝에 참고서적을 표기한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각주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의 졸업논문이나 레포트에서 공공연히, 타성화된 채, 관행이라 우기면서, 아무런 죄의식없이, 자행되고 있는 '짜깁기'는 '저작권법 위반' 법적 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학문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다. 학문은 나의 말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것은 남의 말을 분명히 가릴 때 가능한 것이다. 나의 말, 남의 말을 가르지 않을 때 남의 말도 나의 말인데, 애써 나의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상상력, 창조력의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 말하는 길인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행해져 온 '짜깁기'를 보면 그것은 인용이 아니다. 논문이나 레

포트의 뒤에 '참고문헌'을 적는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표절한 책의 목록일 뿐이다.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인용이 아니라 신성한 학문세계에서 벌이는 '도둑질'임을. '표절' 말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도둑질하지 말라'를 범해 왔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 '짜깁기'와의 전쟁, '표절'과의 전쟁을 시작해야한다. "우리 학생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학문은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 그러나 학부학생들이 직업으로서의 학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학문하는 자세, 즉, 남을 속이지 않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논문과 레포트에서 '짜깁기' 대신 인용을 '각주'로 정리했으면 한다.



김 호 성
불교대
인도철학과 교수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새 인류가 된 우리, 더욱 더 현실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다.

네티즌, 현실소외 두드러져

"수많은 진실들이 지금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 놓여있다.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현실과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다시 그 세계로 빠져들고 싶다. 우리는 현실과 가상 세계라는 두 공간을 같이 드나드는 새 인류가 되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현실과 가상현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들의 삶 깊숙이 파고든 인터넷, 사이버 문화는 네티즌이라는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켰고 이들이 가지는 넷문화에 대한 사랑은 현실세계를 침범해 넘쳐 흐른다. 하루에도 셀수 없을만큼 수많은 대화와 만남이 오가는 가상공간에서 네티즌들은 주로 현실에 대한 넋두리를 하거나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르듯이 네티즌 문화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가장 대표적인 매스미디어인 TV보다 3배이상 빨리 대중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네티즌 문화의 급속한 성장은 그것을 이용하는 대중이 그 문화에 이끌려 갈 소지가 적지않다.

통신문화, 채팅문화, 게임문화 등으로 연령층을 뛰어넘어 차츰 변화된 인터넷문화는 게임문화에 이르러 극에 달하고 있다. 술문화, 담구문화가 대학문

게임문화 이르러 '가속' 매체로 인식되는 인격

화의 전부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고 "하루라도 게임방에 가질 않으면 불안하다"는 대학생들이 있을 정도다. 인터넷을 통한 게임 베틀넷, 이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인간과 기계와의 만남을 했던 기존과는 달리 인간과 인간, 주체와 주체들간의 만남으로 연결해준다. 대표적인 예로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스타크래프트'를 들 수 있는데 이 게임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테란, 프로토스, 저그란 세종족에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고 광활한 우주공간에서 승리를 위해 전진한다.

본교의 한 학생은 "게임에 몰입하면 좀더 멋진 전술로 상대방을 제압해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내 안에 숨어있던 승부욕이 솟는것 같다"며 게임에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서로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로만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실과의 소외를 느끼게 되고 괴리감은 깊어만 갈것이다. 어쩌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대학내에 게임매니아들이 증가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생 환영식을 숲자리 대신 게임방에서 대신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황성규 기자
dg19711439@mail.dongguk.ac.kr

정승석 교수 가 권하는 책



세계인의 유사신화



이 책은 신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쓰여진 책이다. 기존의 신화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이나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 세종서적, 정가 8천5백원.

한국인, 가치관은 있는가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의 두 가지 면이 있다. 이 책은 한국인의 단점을 파헤치고 현재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 방법을 다루어 놓았다.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의 시각과는 많이 다르고 우리 자신의 실상을 한번쯤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계절, 정가 8천7백원

죽음의 역사



기존의 학문은 죽음에 관해서는 그 어떤 증명도 없었다. 이책에서는 죽음을 통해 생명체의 덧없음을 차분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인간 본원적인 문제 중 죽음에 관한 것은 역사학적으로 철저하게 의문 당해왔으나 이 책에는 시대적으로 인간의 의식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문문선, 정가 1만3천원

매체비평

- '어머니 신드롬'

"가정의 뿌리라 정의된 아버지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공평한 현실을 온몸으로 이겨냈던 어머니, 모성애를 반추하게 된다"



IMF와 세기말의 불안심리가 '어머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면 떠오르는 게 있다. 바로 고향과 어머니이다. 요즘 그 '어머니'가 뜨고 있다. TV, 영화, 연극, 대

중가요... '어머니'가 뜨고 있음을, 아니 떴음을 각종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신드롬이라고까지 명명되고 있는 이 현상은 지켜볼 정도로 회자되고 있는 IMF와 세기말의 불안심리가 연출해낸 것이다.

벌써 수년째 방영되고 있는 문화방송의 '육남매', 국민배우 김혜자와 최진실 주연의 '마요네즈', 극단 산울림의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손숙의

'어머니', 그리고 신인그룹 GOD의 노래 '어머님께'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는 구석구석에서 고단한 이들이 안길 수 있는 파스한 품이 되어 주고 있다.

이 '어머니'들은 크게 두가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어머니의 상, 바로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살며 자식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 '육남매', '어머니', '어머님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제 식민시절과 6·25전쟁 등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던 '육남매', '어머니' '보살'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지만 한다. GOD는 이러한 어머니를 위해 노래한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에 반해 '엄마는 오십에~'와 '마요

네즈'에 나타나는 '어머니'는 마냥 '철부지'처럼 보인다. 딸이 예쁜 원피스를 사다 주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거나 ('엄마는 오십에~'), 딸의 처지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밭코트를 사달라는 ('마요네즈') 식이다. 이처럼 자기애나 자식과의 동일성 등이 모성애보다 앞서면 부도덕한 어머니로 몰리기까지 한다. 어머니의 '철부지' 행동에 객석 이곳저곳에서 '딸'의 탄성이 흘러나온다. 사실 어머니로서 '어머니'를 보는 것과 딸로서 '어머니'를 보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객석의 어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한다.

'엄마는 오십에~'와 '마요네즈' 둘다 어머니를 어린 딸이 과거의 모녀관계를 회상하는 형식을 이루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어머니 생전에 잘 해드리지 못한 딸의 회한으로 이어진다. 딸이 자신의 세계를 찾아 떠나자 병원에 홀로 남아 혼자 딸의 생일상을 차리는 어머니는 '엄마는 오십에~' 후일 딸에게 아픔으로 남게 됐다.

IMF로 고개숙인 아버지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족의 해체까지 이뤄지는 요즘, 어머니를 회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정의 뿌리인, 뿌리라 정의된 아버지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과거 영웅에 대한 향수가 짙어지고, 공평한 현실을 온몸으로 이겨냈던 어머니, 모성애를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인간은 집이라는 따뜻한 장소를 구했던 것인데, 첫째로 육신의 따뜻함을, 둘째로 사람의 따뜻함을 구했던 것이다. -쓰로틀 '집-숙의 생활'

19세기 미국문화와 사상계를 이끈 대표적 사상가, 쏘로의 말처럼 '집'은 인간을 보호하고 키우는 곳이다. 현재 본교생의 20-30%는 심수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 새로운 '집'에 정착했거나 새로운 '집'을 찾고 있다. 그들의 '집'은 생활형태에 따라 흔히 세가지로 분류된다. 하숙집, 자취집, 기숙사가 그것이다. 대개 새로운 집은 심수년간 살아온 집보다 자유스럽지만 약간의 불편하기 나름이다. 경비도 만만치 않거나, 떠나온 가족들이 마냥 그리기만 하다. 학생들은 한 생활비, 생활의 편리함을

찾아 집을 자주 옮기기도 한다.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은 나누누리에 개설된 '달팽이들의 자취촌'을 주목하라. GO SGDLJA하면 자취, 하숙생활을 하고 있는 전국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다. 요리법, 비서시작, 상식, 취업 등 각종 정보도 있다. 지난해 10월 8일에 생겨 아직은 자취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번개' 모임도 쓸쓸한 재미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자유를 만끽한다



'자취가 뜨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집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한다. 귀가가 늦고,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잠만 자는 방이나 고시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하숙집에서 생활할 때보다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

하고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서울캠 주변에도 십여군데나 생겼다. 육실과 화장실, 싱크대, 불박이장이 완비된 원룸은 개인생활이 보장되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취향을 잘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많은 자취생들이 한 집에 살면서 밤늦게 귀가할 때면 옆방 눈치를 살피야하고 공동화장실과 공동 세면장을 사용하여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원룸이라면 이런 걱정은 딱!

고시원은 그 성격이 바뀐 정도이다.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보다 요즘은 주거를 목적으로 찾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편리한 교통, 목욕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고시원은 보증금없이 월15만원에서 20만원

안팎으로 하숙이나 원룸보다 저렴해 학생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잠만 자는 방의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밖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고시원 만큼이나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잠만 자는 방 역시 과거, 다가가 주택이 대부분이라 경제적으로 저렴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반 나은 것이 없다. 학생들이 자취를 더욱 선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취촌 주변에 있는 빨래방이나 그외의 편의 시설, 자취를 하는 한 학생은 "오히려 고합집보다 더 편리해요"라며 자취생활의 자유로움·편리함을 강조한다.

학생들의 자취 선호는 가격의 저렴함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자유로움을 추구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인) yangkang@cakra.dongguk.ac.kr

선택폭 확대된다



'하숙생 구함 000-0000' 항상 새학기가 시작되면 교내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하숙집 광고스티커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대와 실속을 따지는 학생들로 더 이상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적힌 스티커나 광고만으

로는 하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되었다.

하숙집 아줌마의 눈치를 살피야하고 식사시간을 놓치면 사먹어야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점점 하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시들해졌다. 따라서 하숙집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가지각색의 기발한 멘트를 동원한 광고의 등장이다. 하숙집을 선전하는 멘트는 "fantastic", "주방, 담배로 사용하세요. VTR, 전화기, 싱크대, 냉장고, 책상과 침구류, 옷걸이 등 없는 것 빼고 다있음", "끝내줍니다. 말이 필요없어요!", "일단 오세요. 미팅주선-하숙집 주인 딸백" 등이 그 예다.

가장 큰 변화는 특성화된 하숙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신촌의 한 하숙집은 신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을 잘 반영해 책상과 싱크대, 화장실과 욕조를 겸비한 원룸식 하숙

을 하는 곳이 있다. 그의 식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일주일에 두 번은 일식, 두 번은 양식으로 식사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집도 있다.

그러나 역시 하숙보다는 자취를 선호하는 학생들로 본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 한 아주머니는 "예년에는 남는 방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올해는 비어있는 방이 더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학생들에게는 폭넓고 자유롭게 하숙집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 보증금과 6개월이나 1년의 계약으로 하숙생들의 발목을 잡던 예전의 횡포가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식사의 질이 개선되었으며 하숙집간의 가격경쟁으로 5만원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 앞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하숙의 형태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 yangkang@cakra.dongguk.ac.kr

학교생활 색다르다



많은 운방골 학생들은 오후무렵이 되면 학생회관, 도서관, 진흥관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해질무렵이면 도서관을 찾거나 교문을 나서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나, 캠퍼스 생활을 색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기숙맨', '기숙우먼'으로 불리지는 사람들이다.

하루 세끼 식사가 시간맞춰 제공되기에 학교식당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세탁시설 및 매점, 체육시설 등이 건물에 겸비돼 있어 굳이 교문밖을 나갈 필요가 없다.

또, 기숙사자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을 형성. 남녀동의 기숙사생들끼리 방팅을 하거나 게임모임 등을 결성해 단체대회를 갖기도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오픈하우스와 가을축제, 체육대회 등을 들 수 있다.

관원이 아닌 일반학생들을 초청해 이벤트 행사, 납여퀴즈 등의 문화공연을 갖는 오픈하우스 행사는 운방골 학생들의 전체 축제로 확산된다. 시기에 있어서도 대체로 대중적 전에 치러져 그 영향은 더욱 크다.

그러나 대학생활은 완전한 자유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기숙우먼들은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조심하여

준수해야 할 규칙이 있다. 오후 11시와 오전 6시사이에는 일체 출입이 통제되며 평상시 타관생의 출입은 금지된다. 또, 술·고성방가 등 단체생활에 방해되는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기숙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기숙사에 합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입학이 결정될 정도"라는 한 관계자의 말에서 그 선호열기를 실감할 수 있다.

같은 캠퍼스에 있으면서도 주거하는 곳이 달라 또다른 삶을 살아가는 기숙사생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대학인에게 기숙사란 공간이 약간의 불편은 주겠지만 온방골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 볼만한 곳이 아닐까싶다.

황성규기자 dg1971439@mail.dongguk.ac.kr

잡은소식

학교 안에서

한강은 흐른다.



연극영상학부에서 개최하는 신입생 환영공연. UN군 상륙작전 직후인 1951년 4월 초 사기꾼과 밀매꾼으로 가득찬 동대문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어두운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연출 이재식, 기획 이지용.

서울캠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오후 4시, 7시(단, 11일 4시 공연 없음). 문의 2260-8753

사랑을 찾아서

극예술연구회에서 제 16회 신입생 환영 공연을 개최한다. "사랑이나, 이별이나?" 한 떨기 꽃과 같은 연약한 젊은 여성에게 그중 양자택일을 어찌 강요할 수 있으리요?"라는 광고 맨트에서 극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김광림 원작으로 연출 김대원, 기획 이현명. 서울캠 학생회관 5층 소극장에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6:반,토3:7시), 무료입장

학교 밖에서

제3회 대학(원)생 정치개혁 토론회

역사문화아카데미에서는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라는 주제로 논문을 공모한다.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3월말까지 2백자원고지 30장 내외의 논문과 인적사항, 자기소개서 제학정서서류를 역사문화 아카데미 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에게 각각 1백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 2202-3202, 016-204-6344

2천년을 여는 맞이굿

우리 전통을 악을 계승·발전시켜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한국예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무대. 입춘대기를 기원하며 이 시대의 최고 궁정들이 무대에 올라 우리민족의 신명을 한껏 살린 흥겨운 한판 놀이마당이 될 것이다. 한국음악의 원형을 오늘에 맞게 계승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오후 7시). 문의 2264-8448



메아리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공자가 이를보고 연유를 묻자 여인은 "지난날에 지아비가 호랑이에게 물려죽고 이번에는 아들마저 죽었습니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더욱 공명해진 공자가 되물었다. "그럼 왜 이런 위험한 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답하기를 "이 곳은 호랑이로 인해 무서우나 가혹한 정

치가 없으므로 참고 견뎌니다"

▲선거는 민중의 힘을 얻어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이며, 당선된 대표는 민중을 위해 자신의 그 한몸을 아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는 금권정치, 향량주의로 물들어 선거를 치를 때만 민중, 대중이고 당선되고나면 권좌를 이용해 더 큰 돈과 명예를 쥐어잡으려는

속성이 있다.

▲얼마전 우리는 20세기말 '가정맹어호'를 지켜보아 했다. 농·수·축협이 가혹한 정치 아닌 정치로 민중들은 분노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기설기 연대보증으로 인해 가구당 약 7천여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거나 소값과농도 생계를 직정해야만 했던 농축산인들에게 수천억에

이르는 방대한 부실경영을 자행한 농협과 한탕주의에 물들어 있는 조합장의 비리, 국내에 남이도는 소를 두고 수백억원어치의 쇠고기 수입을 감행한 축협의 행태는 가히 민중을 대상으로 가혹한 정치를 일삼아 온것이라 할 수 있다.

▲농협·수협·축협 등의 본래기능은 자재구매, 생활물자 공급 등으로 조합원의

수익증대와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저버리고 갯밭에만 관심을 뒀 온나라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과연 이들의 행동이 호랑이보다 덜 아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황성규 편집부장 dg1971439@mail.dongguk.ac.kr

소나기

새천년에는

△잘 살고 싶다
△통일이 되었으면
△그다음 천년까지 살고 싶다.
△팀레니엄 베이비를 낳아야지
△나의 하나와 열심히 살자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소서
△잘 살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재건 또는 강화에 힘쓰자
△학자투를 열심히 전개하자
△공부하자
△다가오는 새천년을 준비한다.
△웃으면서 살고 싶다
△개벽은 오려나
△새천년이 이천년인가? 이천년도에는 지금과는 다른 신인류가 되어야지
△달라질 건 없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과의 이별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리라
△고려시대와 현시대를 아우르는 유구한 천년의 역사-아찔하다
△새천년을 이루어나갈 모든 단체 여러분들, 열심히 하여 동국대학교는 우리 손으로!!! -D.K
△새천년에는 장학생이 됩시다.
△새천년에는 학교한번 받아보고 싶어잉
△너 죽어
△뒤늦은 Y2k의 혼란이 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새천년이 오긴 올라나 Mr노가 99엔 세상이 망한다는다 -국문 곰티기가
△전세계에 전쟁이 없어지길.
△냇물은 강물의 소리와 바다의 몸짓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흐르고 흘러서 강물의 소리가 되고, 바다의 몸짓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다합니다. 그리고나서 위대한 축복을 기다립시다.
△새천년에는 내가 있다.
△새천년은 2000년부터 시작인가. 2001년부터 시작인가.
△졸업한다.
△새천년은 2000년이 아니구 1000년이 아닌감.
△새천년에는 등록금 내려달라.
△새천년에 노트라다무스를 기억하길 바란다.
△비만인이 이세상에서 없어지길.
△웃다가 이세상에서 없어지길.

다량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비후가스(1500) 콩나물볶음밥(1300)
화	떡갈비찜(1500) 만두국백반(1300)
수	산채비빔밥(1300) 두부김치(1300)
목	낙지덮밥(1300) 순두부찌개(1200)
금	제육볶음(1500) 잡채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어묵볶음밥(1300) 옥계장(1300) 햄찌개(1300) 어묵볶음밥(1300)
화	스파게티(1300) 소고기영양탕(1500) 김치수제비국(1300) 스파게티(1300)
수	오징어소면볶음(1300) 사골곰국(1300) 콩나물국(1300) 오징어소면우침(1300)
목	족발(1500) 팥콩국밥(1300) 된개장(1300) 족발(1500)
금	참치회덮밥(1300) 김자랑(1500) 새알심미역국(1300) 참치회덮밥(1300)

(단위:원)

야학, 지식을 함께 주고받는 곳

교육여건 개선·진정한 야학의 의미 인식이 선결과제

중앙도서관 1층 남자화장실에 붙어있는 야학 교사모집 전단지들 본 순간이 나의 야학 생활의 시작이었다. 남들이 가지 못했던 길을 가고있다는 뿌듯함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고단한 날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저녁마다 사라지는 나에게 '야학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였다. 점점고시를 대비한 학원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는 곳이라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야학을 접어둔지 두 해를 바라보고 있다.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야학을 정의하고 싶은 시기이다. 지금의 또는 야학이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뭔가를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그래서 자기만족을 얻고자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 때문에 몇몇 야학에서는 교사와 학생을 강학(講學)과 학강(學講)이라 부르는 것이다.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일 것이다. 이에 반해 현실의 야학은 학력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 최종졸업이라는 불명예(?)를 씻고자 하는 학생과 비주류의 대학 생활에서 사회 중심에의 참여 그리고 불사를 통한 자기애를 맛보고자 하는 교사의 집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앞서 정의한 야학의 진보된 방향에 비해 낙후된 교육 여건이 또 다른 한계이다. 이 두 가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야학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가상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만큼의 시간을 뒤로 돌려 놓을 듯한 학교 모습이 공존한다는 현실을 동국인으로서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야학에 참여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www.yahak.co.kr을 이용하길 바란다.

김승수(사법대 수학교육과)

수혜자 중심의 학교공간 개선 절실

4번째 맞이하는 동학의 봄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3월은 새내기들의 입학과 학생들의 새로운 각오로 활기에 넘치곤 한다.

하지만 이번 학기엔 유난히 마음이 쓸쓸해진다. 개강 첫주부터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난 줄과 수강신청 정정장을 하기 위해 두세시간씩 기다리는 학생들, 그리고 공나를 시루처럼 뻗어있는 도서관 열람실. 학교 생활이 조금이라도 몸에 밴 학생이라면 '언제부터 학교가 이렇게 변했나' 하는 아쉬움을 느껴 봤을 것이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지금, 이제 대학도 경쟁력과 서비스를 높여야만 되지 않을까? 더 이상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컴퓨터를 이용해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학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 본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고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건 적절한 공간의 확보이다. 학교 당구나 우리들의 대표인 총학생회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정말 하루하루 동학에서 꿈을 키워 가는 수많은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순 없지만 최소한 퇴보가 아닌 발전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며, 이러한 노력들로 신바람 나는 대학생활이 되었으면 한다. 동학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김기영(공과대 토목공학과)



TEL : 22603491·2 / (0561)7702057·8
FAX : 22791270
인터넷 동대신문 ; http://dgupress.dongguk.ac.kr
하이텔·나우누리 ID: 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학광장

목명길
축하합니다
△새내기 입학에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94주최회계선배가
△유성인과 은희 생일 축하합니다. 이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수교97
△99역교과 새내기 여러분 입학에 축하합니다. -북학생 선배
△수교과 99후배들! 입학에 축하하며 열심히 공부하자. -익명의 남자선배
△채희숙(인문학부 99)학형의 민중사랑 입회를 축하합니다. -동연 쌍

수고하셨습니다
△99 새터 잘 마치신 동연기획단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이 형
△3.11 정혁군의 군 입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중사랑 예비역 일동

열심히하시다
△새로운 두카인 환영합니다. -15기 중 헤리미
△중문과 99학번 새내기여러분 헌네기가 될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mir

열심히하시다
△99물리체과과학부 여러분 동기사랑 나라 사랑. -97 DH
△99물리반도체 후배 사랑한다. -98왕대거리
△반도체 98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생활하세요. -99학생 98
△수교과 99후배들! 입학에 축하하며 열심히 공부하자. -익명의 남자선배
△채희숙(인문학부 99)학형의 민중사랑 입회를 축하합니다. -동연 쌍

그리고...
△다량관을 돌리도-화장실만 좋아지면 위해 밥은 맛없는데. -진영
△물리체 99 밥 많이 먹고 잘커라. △(전자)경철아 바람 좀 그만 피라! -전 play boy
△승재야? 군대 잘 갔다 오려나. -경통 재훈

올바른 자보수거

캠퍼스를 둘러보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 벽에는 넘쳐나는 자보들이 형형색색으로 주위를 가득 메운다. 다양한 내용과 다양한 색상을 자랑하며 걸여가고 있는 이에게 잠시서서 날 읽어달라고 말이다.

자보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행사나 알리고자하는 내용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무질서한 자보들이 오히려 캠퍼스의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곳곳의 벽면에는 덕지덕지 자보들이 붙여져 있다. 이미 기간이 지났거나 찢겨져 있거나 하는 자보들도 볼 수 있다. 어찌보면 이것이 대학문화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대학문화라든 우리가 좀 더 질서를 찾아가 주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단체나 모임에서 쓴 자보는 스스로 수거하는 태도는 어떨까. 적어도 기간이 끝난 자보가 벽에 붙어있지 않을 것이다. 또 자보를 보는 우리들 또한 자보를 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장난으로 찢거나 때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자보가 적어도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하여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자보 위에다 자신의 자보를 붙이는 몰상식한 행동 또한 해선 안될 것이다.

자신의 자보가 튀는 것도 좋고 기발한 착상으로 붙여도 좋다. 하지만 적어도 여긴 우리의 학교이고 우리의 공간이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수많은 자보들 때문에 벽면이 어지럽진 않을 것이다.

대학은 작은 사회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돌아가는 작은 사회인 것이다. 이곳의 문화와 질서는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좀더 깨끗한 문화, 좀더 질서있는 대학문화를 정착해 나가자.

오경복(불교문화대 불교이동학과)

동대신문 모니터요원 모집

본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모니터원제도를 실시하며, 3월 18일까지 모니터요원을 모집합니다. 교수·학생·직원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및 관심을 바랍니다.



최 학 (2)

모니터링

1265호 동대신문을 읽고...

오솔길, 따뜻한 내용으로 가슴 '뭉클'

11면, "새터평가, 여론수렴 아쉬워"

3월 1일자로 새로워진다는 이전 호기사를 보면서 내심 변모해 있을 동대신문을 읽어내려갔다. 우선은 처음과 끝면이 칼라로 만들어진 점이 이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고 대학내에서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데에도 신선함으로 작용한 것 같다.

8면 오솔길에서는 해외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김정훈학형의 이야기가 작년 동대신문에 나온 모금캠페인에 이어서 귀국후 근황을 알려주어서 대학내에서 함께 생활했던 동우들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했다.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선배의 의지가 보여져 대학내에서 동대신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유용이라는 기능과 독자에 대한 책임을 견지하는 역할을 알차게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11면에 작게 보도된 99새터평가에서 중앙공원이 영성하다는 평가 예년과 다름없었다는 이야기속에서 한 정적이라는 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과학대 새내기들의 평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 받았고 이후 문제의식을 키우는 데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됨으로써 제대로 된 새터평가가 아닌 '영성'한 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1진배의 공연과 새내기들의 반응만을 취합하고 2진의 내용과 진행상황은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대학신문으로서의 자리찾기에 있어서도 고쳐져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

박종근(문과대 영어영문학과 아)

현실적으로 한자비용 피할 수 없다

한글전용, 한자의 음을 도용한 것일 뿐

한겨레21과 동대신문에 실린 한자비용 반대에 대한 기사를 본 순간 필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전에도 일부 한글학자나 민족주의자들에게 의해 한글전용론이 몇 번이나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만큼은 그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밝혀 두지만 필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백성 중의 한 명이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저 한글전용론자들의 주장처럼 우리글이 한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 필자의 실제경험으로서 그 예를 들어보겠다. 필자가 PC통신에 ID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름들을 살펴보면 중 권왕은 우리말 ID를 지어보겠다는 일념 하에 국어사전을 뒤져 본 적이 있다. 무식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방법이지만 그

래도 국어사전이만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순우리말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근 몇 십분 동안 계속 뒤졌으나 결국 그건 지극히 무식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는 순우리말이 그리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의성어나 의태어 아니면 접속사나 조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필자는 뜻이 그럴싸한 한자어 ID를 만들었지만 쓸쓸한 마음은 지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우리말 나들이'에도 외래어 대신 가르쳐 주는 우리말이 한자어이다.

이제 한글전용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뜻글자인 한자의 음을 빌어 소리글자인 한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가. 국호조차도 그 뜻도 제대로 모른 채 그 음만 영문새처럼 외어 뱉 것인가.

이동희(인문학부 한문학과)

알립니다
△술메리아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Rock에 관심있으신 분은 운동장 스탠드 뒤로 오세요!
△우리의 영원한 벗 왕새우 정우가 군대 갑니다. 부디 몸건강하길 바랍니다.
-친구 승희, 현희, 미희가
△통영 향우회 합시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뵙고 싶습니다.
-97동명
△금구 포함 17기 모집 남, 여 선착순 10명. 장소는 A323이고 모이는 날은 매주 수요일 5시

그리고...
△백백아! 군대 잘 갔다와라.
△재인이야 보고 싶다. -재영
△승현, 동석 우리 한집서 잘 살아보세. -윤발
△준구야 빨리 온나. 보고 싶어서 기리묵 되겠다. -색시가

그리고 열심히 하시다
-영문 이쁜이들!
-재영
△승현, 동석 우리 한집서 잘 살아보세. -윤발
△준구야 빨리 온나. 보고 싶어서 기리묵 되겠다. -색시가

수고하셨습니다
△You-Loss를 공연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오빠, 동기를 사랑합니다. You-Loss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제진이
△가정교육과 15대 학생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년 동안 또 수고 부탁.
-학회장

열심히 하시다
△수교 4학년들! We cam do it now. 열심히 하시다. -수교 이쁘니
△99년도 국통과 학생회 열심히 하시다. 98학생회 수고에 치하드립니다.
-혁회장